

지역 매아리

정읍시 보건소, 추석명절 대비

건강식품·의료기기 지도·점검

정읍시보건소(소장 문상용)는 추석명절을 대비하여 건강기능식품·의료기기 업소를 대상으로 오늘부터 13일까지 4일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지도점검은 명절을 앞두고 건강기능식품과 의료기기 등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업소들의 과대·허위 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영업자 준수사항 여부, 거짓 또는 과대광고 여부, 불법(무허가) 의료기기 취급·판매 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관내 건강기능식품판매 및 의료기기 업소의 운영수준을 높이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들이 과대·허위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판매가격과 효능·효과를 미리 꼼꼼히 살펴보고 신중히 구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 예취기 특별점검·임대

정읍시농업기술센터(소장 문재현, 이하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오는 21일까지 추석맞이 동력예취기 특별 점검검비와 임대 실시한다.

이 기간 농기계교육장(본소)에서는 동력예취기 수리 점검과 함께 농기계교과이 안전사용요령을 교육해준다.

농업기술센터는 동력 예취기 66대를 확보하고, 1일 5천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정읍시민에게 임대해주고 있다. 예취기를 임대하고자 하는 시민은 신분증과 농업인안전공제 또는 개인실손보험 사본을 지참하여 농기계임대사업소(본소, 북부, 서남권)를 방문·신청하면 된다.

농촌진흥청 조사결과에 따르면 예취기 사고의 주원인은 작업자 부주의(50%), 사용 미숙과 안전장비 미착용(25%)으로 인적 비율이 높다. 부상사고 유형으로는 칼날이 돌 등에 부딪히면서 생긴 파편에 의한 경우가 37.5%로 가장 많았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에 따르면 예취기 안전사용 요령은 다음과 같다. 안전모·보안경·무릎보호대·안전화 등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또한 시동을 걸때 예취기 칼날이 땅에 닿지 않도록 하고, 작업방향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하며, 작업 방향에는 접근하지 말아야 한다. 이밖에 무리한 작업과 음주 등은 안전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충분한 휴식과 안전수칙을 준수해야한다.

/정읍=김대환기자

‘위기’의 ‘위도’ 앞바다

부안군의회, 위도 앞바다에 대한 고창군의 관할권 주장 강력 반대

부안군의회는 부안군과 고창군 양 지자체 간의 우호 관계에 친목을 끼얹고 지역 간의 갈등과 반목을 야기하는 위도 앞 바다에 대한 고창군의 관할권 주장을 강력히 반대하며 6만 군민과 함께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고 지난 7일 밝혔다.

1963년 관계법령 개정으로 주민의 편의와 지리적 조건을 종합 고려하여 위도의 행정구역이 전남 영광군에서 부안군으로 변경되어 불법어업에 대한 지도단속 업무 수행 부안군 관할 해역이라는 법적·사회적 확신이 널리 인식된 상태로 행정관습이 존재해 왔다고 주장했다.

위도는 전라북도에서 가장 큰 섬으로 섬의 특성상 대부분의 주민들이 위도 앞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아 어업을 생업으로 영위하고 있어 위도 주민들의 위도 앞 바다에 대한 높은 생활의존도를 생각해 봤을 때 이곳을 관할구역이라고 하는 고창군의 억지 주장은 역사성과 위도 주민의 생존권을 무시한 처사로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첫째, 위도 앞바다 해상경계 획정과 관련한 고창군의 관할권 주장은 부안군의 기존 해상자치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서 부안 군의회는 이에 대한

모든 내용에 결사반대함을 천명한다. 둘째, 한밭재판소는 위도 이남 해역이 위도 주민들이 오랜 기간 어업행위를 해온 역사상, 각종인·허가 등 행정행위가 다년간 부안군에서 이루어진 점, 타 유사 지역에 대한 기존 관례 등을 종합 고려하여 합리적인 판결을 해줄 것을 촉구한다. 셋째, 고창군에서는 부안 어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양 지자체가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현재 진행 중인 권한쟁의심판 등 더 이상의 소모적 분쟁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부안=이옥수기자

고창전통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본격화’

고창군(군수 유기상)이 2017년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에 선정된 고창전통시장을 지역의 역사와 문화, 특산물 등과 연계한 고유한 특성 개발로 관광객이 장보기와 관광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육성하기 위해 매진하고 있다.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1년차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한 고창군은 사업의 도약을 위한 2년차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

기 위해 ‘건강한 먹거리를 자랑하는 무병장수 고창전통시장’을 콘셉트로 관광객을 시장으로 유인하고 주민의 시장 이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콘텐츠 개발과 상인들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2년차 사업은 어두운 시장 분위기를 밝게 조성하기 위해 시장 내부 디자인 조명과 아트 간판을 설치하고, 시장을 찾는 고객에게 다양한 시장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LED 미디어 보드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상인 특화교육, 우수 점포 발굴, 먹거리 골목 활성화 및 핵심점포 육성으로 상인들의 역량 및 자생력을 강화하고 홈페이지 구축, 블로그 마케팅으로 고창전통시장을 널리 알리기 위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생물권보전지역 고창군의 깨끗하고 믿을 수 있는 먹거리와 함께 즐거운 장보기를 할 수 있는 장을 찾는 고객에게 다양한 시장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LED 미디어 보드를 구축할 예정이다.”

/고창=김영식기자

‘자연재해도 비켜간 청정해역 고품소로 오세요’

부안 행안면 이장협의회

곰소갯길발효축제 홍보나서

부안군 행안면 이장협의회 회원들이 오는 14일부터 열리는 ‘곰소 갯길 발효축제’ 홍보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이날 행안면 이장협의회(회장 이인환) 27명의 회원들은 지난 7일 충북 단양군민들에게 청정해역에서 갯잡은 조기, 당쟁이 새우를 천일염으로 담은 ‘곰소 갯길 발효축제’ 홍보를 펼쳤다.

이장 협의회회원들은 “한 사람의 소비, 관광객의 입장에서 지켜본 10여 년 동안 곰소 갯길 발효축제는 꾸준히 발전하고, 내실을 다져왔다”며 단양군민들에게 자신 있게 추천했다. 회원들은 오늘 행사를 계기로 “미래로 세계로! 생동하는 행안 만들기에 다 같이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며, 앞으로 다양한 문화·체육행사를 마련, 적극적인 소통과 화합을 위한 장을



부안군 행안면 이장협의회 회원들이 14일부터 열리는 ‘곰소 갯길 발효축제’ 홍보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만들어갈 것을 약속했다. 이인환 행안면 이장협의회장은 “사상 유래가 없는 폭염과 태풍, 호우 등 자연재해도 행안면에는 별다른 피해가 없었는데, 이는 행안면 주민과 이장님들의 숨은 노력의 결과”라며

감사를 표했다. 한편 곰소 갯길 발효축제는 부안군 진서면 곰소다용도부지에서 매년 실시 되는 부안군의 대표축제로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개최될 예정이다.

/부안=이옥수 기자

농생명 산업의 수도 ‘정읍’으로 오세요

지역농업개발 시험연구포(圃) 현장 견학장으로 인기

정읍시농업기술센터(소장 문재현, 이하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 중인 지역농업개발 시험연구포가 전국 농업인들의 현장교육의 장으로 붐비고 있다.

정읍시 제2청사 내에 조성된 지역농업개발 시험연구포에서는 아열대작물, 베리류, 지황 등 다양한 작목을 대상으로 시험연구를 진행 중이며, 자생화전시관, 사계절 푸른정원 등을 개방하여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아열대 작목은 선도적으로 도입·연구하고, 신소득작목 발굴과 재배법 개발로 농생명 산업의 수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지난 7월부터 현재까지 전국 농업기술센터에서 근무하는 신규농촌

지도사와 남원시, 보은군, 안성시 등에서 귀농귀촌인 및 학습단체 회원 300여명이 방문하는 등 농가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기술센터를 찾은 타지자체 농업담당자와 농업인들은 한라봉, 레드향 등의 만감류의 실증시험 현황 및 재배관리법, 신소득작목인 기능성파수와 베리류 등의 재배법 및 시장반응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주목받는 농업기술센터의 기술력을 지역주민들에게 보급하는데 힘쓰고, 지속적으로 신소득작목 발굴과 재배법 개발로 농생명 산업의 수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찾아가는 치매조기검진·전수조사 실시

고령화에 따른 치매가 노인이나 한 가정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로 자리 잡은 가운데 정읍시보건소(소장 문상용, 이하 보건소)가 다양한 치매예방 사업을 펼치고 있다.



보건소는 치매예방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8월부터 다음달 10월까지 찾아가는 치매조기검진과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치매조기검진 및 전수조사는 국가 치매관리법에 근거하여 치매 환자 및 고위험 노인의 조기 발견·관리를 위해 실시하는 사업이다.

찾아가는 치매조기검진 사업은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함으로써 예방하고 증상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은 관내 노인복지관, 노인대학, 경로당, 병원 등 717개소를 이용하는 만 60세 이상 주민이다. 사업방식은 치매안심센터 직원 6명(3인 1조)이 현지 출장하여 치매상당(기초·심층)과 치매선별검사, 치매관리사업 홍보를 하는 것이다.

치매환자 전수조사는 관내 병원 및 노인복지시설 등에 있는 치매 진단을 받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치매환자 조진단을 받았으나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되지 아니하여 각종 서비스 제공과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치매환자를 찾아 치매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사업은 치매안심센터 직원 4명(2인 1조)이 출장하여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ANSYS) 등록여부, 치매치료관리비·조호물품 지원여부, 배회가능어르신 인식표 발급 및 지문인식 등록 여부 등을 조사하는 방식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전수조사와 조기검진은 치매환자의 안전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좀 더 촘촘하게 만드는 좋은 기회”라며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Advertisement for Gangsanmyeongju Mulberry Wine. The ad features several bottles of wine and gift sets. Text includes: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and '부안강산뽕주 GIFT SET'. It also lists various gift set options with prices and quantities.